

# “올해 하반기 광주 집값 상승 전망”

광주시민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광주지역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일까지 광주시민 31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광주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8.8%(183명)가 올해 하반기에 광주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2017년 집값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32.5%(전체 452명 가운데 147명)만이 2017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데 비해 긍정적인 전망이 늘어났다.

상반기 주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실제로는

## 사랑방부동산 설문조사 결과...58.8%

### 아파트 분양시장 단지따라 양극화 전망

약보합세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신운2지구, 효천1지구 개발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 개발 현안을 꼽는 응답자가 29.0%(53명)였으며, 높아진 분양가에 맞춰 기존 아파트값도 따라갈 것이라는 응답도 24.0%(44명)를 차지했다.

또 광주 아파트값이 다른 지역

보다 싸서(23.5%·43명), 부동산 만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21.3%·39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하반기에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한 시민은 41.2%(128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25.8%·33명)와 집값이 이미 많이 오름(25.0%·32명), 그동안 시장에 공급된 아파트가 너무 많다(17.2%·22명)는 등의 요인을 집값 하락 이유로 꼽았다.

광주시민들은 올해 하반기 아파

트 분양시장이 양극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40.9%(128명)의 응답자가 단지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자도 24.4%(76명)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정부 정책의 변화(37.6%·117명)를 가장 우선으로 들었다. 이어 금리인상(32.8%·102명)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시민이 생각하는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산구 송정동·도산동과 남구 효천지구, 서구 광천동 등이 꼽혔다.

뉴스

## 스마트폰 업계, 파생폰에 쫓겨 전쟁까지 경쟁 치열

스마트폰 업계가 전통적인 비수기인 7~8월을 맞아 새로운 색깔을 입히고 파생폰도 내놓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30일 G6의 파생폰 G6플러스와 G6 32GB를 선보였고 삼성전자는 오는 7일 갤럭시 노트7의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갤럭시 노트 팬 에디션'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LG의 파생폰은 18:9 비율의 5.7인치 풀비전 디스플레이, 광각 듀얼 카메라, 하이파이 쿼드백 등 G6와 기본적인 사양은 동일하다. 플러스는 ▲옴티컬 이스트로 블랙 ▲옴티컬 테라 골드 ▲옴티컬 마린 블루 등 3가지, LG G6 32GB 버전은 ▲테라 골드 ▲마린 블루 ▲미스틱 화이트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나왔다.

삼성은 작년 하반기에 발화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7의 미개봉 제품과 미사용 부품을 활용한 '갤럭시 FE'를 40만대 한정으로 내놓는다. 소비자의 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리퍼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디자인은 갤럭시7과 동일하지만 뒷면에 팬 에디션(Fan Edition) 로고가 각인됐다. 또 갤럭시7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3500mAh에서 3200mAh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삼성은 지난달 30일 갤럭시7의 코랄블루 모델을 내놓기도 했다. 출시 2개월이 지나면서 주목해온 판매량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 광주신세계백화점 지역 중소기업 관광상품 홍보전



광주신세계백화점은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 공예·문화관광상품 홍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며 광주신세계 후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총 20개 업체가 참가하며 편백 관련 제품, 핸드백, 지갑, 장신구, 부채, 스킨, 생활도자기 등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임원 대표이사는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올해 들어 11번째이다."

김연숙 기자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인사평가 '3不' "불합리·불투명·불공정"

국내기업 직장인 대부분이 인사평가제도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과 중견기업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5.1%는 '인사평가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평가기준의 합리성(36.6%) ▲평가과정의

투명성(38.6%) ▲평가결과의 공정성(36.9%) 등 모든 항목에 걸쳐 '동의한다'는 긍정응답이 40%를 밑돌았다.

직장인들은 이같이 응답한 이유를 ▲사내정치에 따른 평가(58.8%) ▲개인 이미지로 평가(41.2%) ▲연공서열(35.9%) ▲온정주의적 평가(27.9%) 순으로 꼽았다.

특히 원칙 따로 현실 따르인 평가관행이 인사평가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평가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상당수 직장인들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개인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회사·개인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가 44.1%, '회사에만 도움된다'가 34.6%를 차지했다.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16.9%에 불과했다.



## 장어·전복 등 수산 보양식 뜨고 삼계탕 주춤... '복날 공식' 깨진다

'복날 하면 삼계탕'으로 이어지던 공식이 깨지고 있다.

다양해진 입맛과 간편 먹거리를 선호하는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여름철 보양식의 절대강자인 닭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마트가 지난해 6~8월 대표 보양식재료 닭·오리·장어·전복·낙지 등 5종의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2015년 같은 기간 63.3%를 차지했던 닭의 매출 비중이 59.8%로 떨어졌다.

반면 장어·낙지 등 수산 보양식재료는 매출이 11.8% 증가하며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6월까지 이

마트는 '복날 하면 삼계탕'으로 이어지던 공식(500g\*2·봉)을 30% 할인한 4830원에 판매하고 토종닭은 전 품목 30% 할인 판매한다.

또 민물장어 양념구이(155g내외·팩)를 정가 1만6800원에서 25% 할인(신세계포인트카드 소지 고객 한정)한 1만2600원에 판매하고 활전복은 100g당 4780원 골라담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고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기 위해 기존 생 민물장어와 민물장어 양념구이에 추가해 민물장어 소금구이와 소금과 양념을 반반 넣은 '반반'한 장어를 새롭게

수산 보양식, 지난해 6~8월 매출 11.5% 늘며 급부상 여름 보양식 절대강자 닭, 보양식재료 비중 60% 아래로

어진 시의 영향과 닭의 판매가 삼복이 있는 7~8월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닭의 수요는 해마다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닭 하면 떠오르는 삼계탕과 백숙 외에 전복·문어 등 수산물과 함께 먹는 해산탕과 낙지가 주재료인 연포탕 등 보양식을 즐기는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수산 보양식재료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40.9%까지 올라갔다.

특히 다양한 재료와 긴 조리시간이 필요한 타 보양식에 비해 손질된 상품을 집에서 손쉽게 구워먹을 수 있는 장어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73.2% 증가하는 등 간편 보양식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초복(12일)을 앞두고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초복 보양식 대전'을 진행한다. 우

준비했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복날 이슈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젊은 고객층 대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했다.

인기 개그우먼 홍윤희씨가 참여한 이번 콘텐츠는 '쿨(Cool)' vs '핫(Hot)' 구도의 대표 보양식 6개 품목(활전복vs삼계탕·물회vs해산탕·모듬회vs장어)을 선정하여 상품별 재미요소를 가미해 제작하였으며, 이마트 SNS 등을 활용해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마트 마케팅팀 최훈화 팀장은 "복날 하면 삼계탕 일색이던 보양식 수요가 장어·전복 등 수산 보양식 재료를 중심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올해도 고객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다양한 먹거리를 변화하는 보양 트렌드에 맞춰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재해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안전을...

바로 지금 "안전보금자리"를 지어주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